

#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특성에 따른 FRBR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FRBR According to th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of Five Classics and Four Books

김 정 현(Jeong-Hyen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새로운 저작의 경계선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III.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유형과 FRBR 적용 방안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1.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유형               |
| 3. 선행연구                    | 2. 서지적 관계 유형의 KORMARC 기술         |
| II. 서지적 관계 유형과 새로운 저작의 경계선 | 3. FRBR 적용 방안                    |
| 1. 서지적 관계 유형               | IV. 결론                           |

### 초 록

이 연구는 서지적 관계 유형을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레코드로부터 추출된 사서오경 관련 2,940건의 서지적 관계 특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사서오경에 대한 FRBR의 적용에 대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사서오경 관련 저작에는 원작에 대한 해설이나 역주, 번역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서오경의 FRBR 적용 방안으로 개작, 해설, 평론, 역주, 평역 등도 저작의 가족으로 정의한 슈퍼저작 개념의 도입, 관련 저작의 연결 장치로서 RDA의 전거형 접근점 즉, 통일표제의 활용, 그리고 630 필드에 주제명표목으로 통일표제 기술의 예시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서지적 관계, 저작유형, KORMARC 형식, 서지레코드기능요건, 자원접근과 기술, 사서오경

###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bibliographic relationships, a analysis of bibliographic relationships' characteristics of 2,940 bibliographic records on the Five Classics and Four Books taken from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and a methodology for applying the FRBR model based on analysis of the samples. As results of analysis, the work type ranked high particularly in the commentary, translation with notes, and translation on the original works etc. I suggested adopting conception of supper works, that is, family of works and using uniform title as a connective device between the works, that is, an authorized access point of RDA to apply FRBR model of the Five Classics and Four Books. Also I exemplified the description of uniform title in 630 field as subject added entry.

Keywords: Bibliographic relationships, Work types, KORMARC format, FRBR, RDA, Five classics and four books

\*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남대학교 연구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jnu.ac.kr)

•논문접수: 2015년 6월 1일 •최초심사: 2015년 6월 1일 •게재확정: 2015년 6월 1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317-336,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6.317]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사서오경(四書五經)이란 유학의 기본서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의 4서와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 예기(禮記), 춘추(春秋)의 5경을 말한다. 이는 고대 중국의 자연현상 및 사회생활의 기록이며, 제왕의 정치, 고대의 가요, 가정생활, 공자가 태어난 노(魯)나라 역사 등의 기록이지만, 중국은 물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미친 영향이 지대하며, 시대를 초월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저작물이 생성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근본원리를 통치이념으로 하면서 유학을 교육 및 관료 등용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학과 관련된 많은 경전이 간행되었으며, 원전에 대한 해설을 비롯하여 국가의 경영철학이나 일상생활의 규범서로서, 또는 일생의 지침이나 학습도구로서 원전에서 파생되어 끊임없이 생성되었다.

이와 같이 어떤 저작이 창작되어 발행된 이후 파생되는 관련 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작을 번역하기도 하고, 요약이나 발췌하기도 한다. 매체를 달리하여 제작하거나 복제하기도 한다. 특히 사서오경과 같은 경전의 경우, 원전을 해설하거나 주석 또는 평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을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으로 발간하기도 하고, 만화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도 한다.

그런데 원작에서 파생된 이들 저작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서지적 관계가 존재하며, 이 용자들은 이들의 서지적 관계를 유추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저작을 찾게 될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관련 저작들을 목록상에 집중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왔다. 우리가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참조나 주기가 관련 저작들의 서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MARC 형식에서도 관련 저작을 구조화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연관저록 필드를 설정함으로써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저작들을 서지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새로운 저작개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IFLA의 관계 모형인 FRBR도 이러한 서지적 관계 유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분석하여 목록기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목록기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물장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서지적 관계가 실제 장서에서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특정 자료별로 서지적 관계의 특징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서지적 관계가 목록레코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목록조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개체-관계모형인 FRBR의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현 2007, 184-185).

이와 같이 목록레코드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장서의 서지적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저작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오경과 같이 관련 저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교 경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서지적 관계를 기반으로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유형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사서오경의 저작 특성과 목록기술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장차 이들 자료를 조직하여 구조화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유학 경전 가운데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사서오경을 대상으로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여 FRBR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MARC 형식에 구조화되어 있는 연관저록 필드를 비롯하여 Tillett, Bertha, Smiraglia 등이 제시하고 있는 서지적 관계 유형, 그리고 FRBR 및 RDA에 나타난 서지적 관계 유형 등을 분석한 후, 이를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유형 분석을 위한 준거로 삼는다.

둘째,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조사의 범위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로 한정하며, OPAC을 통해 서지레코드를 조사하여 관련 요소들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저작의 유형별 특성 및 KORMARC 형식의 레코드 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한다.

넷째,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FRBR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3. 선행연구

서지적 관계에 대해 비교적 초기 연구에 해당하는 Tillett(1992)의 연구에서는 1841년 Panizi의 목록규칙에서부터 1978년 영미목록규칙 제2판까지 24개의 목록규칙을 분석하여 대등관계, 파생관계, 기술관계, 부분-전체관계, 딸림관계, 전후관계, 특성공유관계 등 7개의 서지적 관계 범주를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Tillett은 후속연구로 1968년부터 1986년 사이에 미국의회도서관의 기계가독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MARC 레코드들 간에 존재하는 서지적 관계를 기술관계와 공유특성관계를 제외한 5개 서지적 관계에 대해 자료의 유형별로 조사하였다.

Smiraglia(1999)는 저작들간의 파생관계를 7가지로 구분하고 조지타운대학도서관의 목록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 Vellucci(1998)는 Tillett의 관계 유형을 기반으로 Estman 음악학과의 음악도서관목록을 대상으로 음악자료에 대한 서지적 관계를 조사, Bennett 등

(2003)은 OCLC의 WorldCat에서 1,000건의 서지레코드를 표본 추출하여 FRBR 모형에 의한 저작특성을 분석, Zhang(2003)는 Tillett의 관계 유형을 기반으로 North Carolina 대학교 도서관의 중국출판물의 서지관계 유형을 분석하였다.

橋結(2005)은 게이오대학 도서관시스템인 KOSMOS II에서 1,000건의 일본어 서지레코드를 표본 추출하여 FRBR 모형에 의한 저작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서지적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 김태수(1994)는 기존의 목록에서 서지적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자동화목록에서 이러한 서지적 관계 유형의 수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양숙(1999)은 참조를 통해 상이한 접근점을 연결하고 서지적 관계 유형을 제시하는 연결장치로서 참조레코드의 형식을 개발하였다. 조재인(2005)은 표현형 계층을 중심으로 한 FRBR 모형분석, 김정현(2007)은 서지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도서의 저작 유형 분석, 노지현(2008)은 KORMARC 레코드에 대한 FRBR 적용 실험, 송선경(2010)은 고서에 대한 FRBR 적용을 위한 서지레코드 요소, 董桂存과 김정현(2013)은 FRBR 모형에 의한 중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유형 분석, 이성숙과 이현주(2013)는 한국전통음악의 서지적 관계 특성에 따른 FRBR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지적 관계 유형을 실제로 조사 분석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사서오경 관련 레코드의 전반적인 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KORMARC 형식의 레코드 기술에 관련된 서지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II. 서지적 관계 유형과 새로운 저작의 경계선

### 1. 서지적 관계 유형

서지적 관계(bibliographic relationship)란 두 개 이상의 서지적 속성 간의 관계이다. 번역서는 원판과 번역판 간에 서지적 관계가 있으며, 합집내의 낱권은 전체 합집의 한 부분으로서 합집과 서지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서지적 관계의 개념은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서지구조 즉, 서지기술, 목록, 그리고 서지 그 자체의 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다(Zhang 2003, 5). 따라서 서지적 관계는 서지 그 자체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서지 요소간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목록의 구조를 결정한다.

근대도서관의 초창기 목록규칙인 Panizzi 91개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참조지시와 Cutter의 사전체목록규칙에서 특정 판의 서지적 구별도 이러한 서지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지적 관계는 오늘날의 MARC 형식에도 그대로 구조화되어 있다.

UNIMARC, MARC 21, KORMARC 형식에서는 해당 자료와 관련자료 간의 서지적 관계 유형을 ① 수직적 관계, ② 수평적 관계, ③ 연대적 관계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김정현 2007, 188). Tillett(1992, 162-163)은 ① 대등관계(복본, 복제물, 영인본, 재쇄본, 사진복제, 마이크로형태의 복제 등), ② 파생관계(번역서, 개정판, 증보판, 축약판, 요약, 개작, 극화, 소설화 등), ③ 기술관계(서평, 평론서, 해설집, 사례집, 주석서 등), ④ 부분-전체관계(선집, 합집), ⑤ 딸림관계(부록, 지침서, 색인집, 용어집 등), ⑥ 전후관계(후속자료, 선행자료, 속편), ⑦ 특성공유관계(해당 자료가 특정 자료와 저자, 서명 주제 등이 동일하거나,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발행국, 발행년 등이 동일한 자료간의 관계)의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Bertha(1993, 215-216)는 대등관계, 수평관계, 연대관계, 계층관계, 특성공유관계로 구분하였고, Smiraglia(1999, 494)는 파생관계의 속성을 동시적 파생물, 연속적 파생물, 번역물, 증보, 축약, 개작, 공연 등으로 세분하였다.

한편 FRBR에서는 서지적 관계 핵심이 제1집단 개체간의 상호관계 즉, 저작, 표현형, 구현형 상호간에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작은 저작 상호간에 서지적 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의 저작이지만 저작 상호간에 후속, 부록, 보유, 요약, 개작, 변형, 각색, 모방 등의 서지적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표현형 상호간에 관계는 '동일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와 '상이한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로 나누어진다. 동일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 유형에는 축약, 개정, 번역, 편곡 등이 있다. 상이한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 유형에는 저작과 저작수준에서와 유사한 서지적 관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구현형 상호간에 서지적 관계는 보통 동일한 표현형으로부터 나온 구현형과 관련이 되며, 서지적 관계 유형은 복제와 대체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각각의 상호간에는 위에서 언급한 서지적 관계 외에도 전체-부분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RDA는 개체의 관계에 대해 제5부~제10부에 기술되어 있다. 자원과의 관계 유형은 FRBR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자원의 유형으로는 주요(primary) 관계, 대등관계, 파생관계, 기술관계, 전체-부분관계, 딸림관계, 전후관계가 있다. 자원간의 관계는 ① 관련자원에 대한 식별자, ② 관련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를 나타내기 위한 전거형 접근점, ③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된 형태의 관련 자원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RDA 24.4). 이때 기술대상 참조자원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지시하기 위해 RDA 부록 J에는 340여개의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RDA에서는 서지적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FRBR의 관계 유형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서지적 관계를 가능한 한 구조화 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성숙과 이현주(2013, 414)는 국악자료의 특성과 RDA 부록 J를 참고하여 국악자료의 관계 유형에 따른 관계 표시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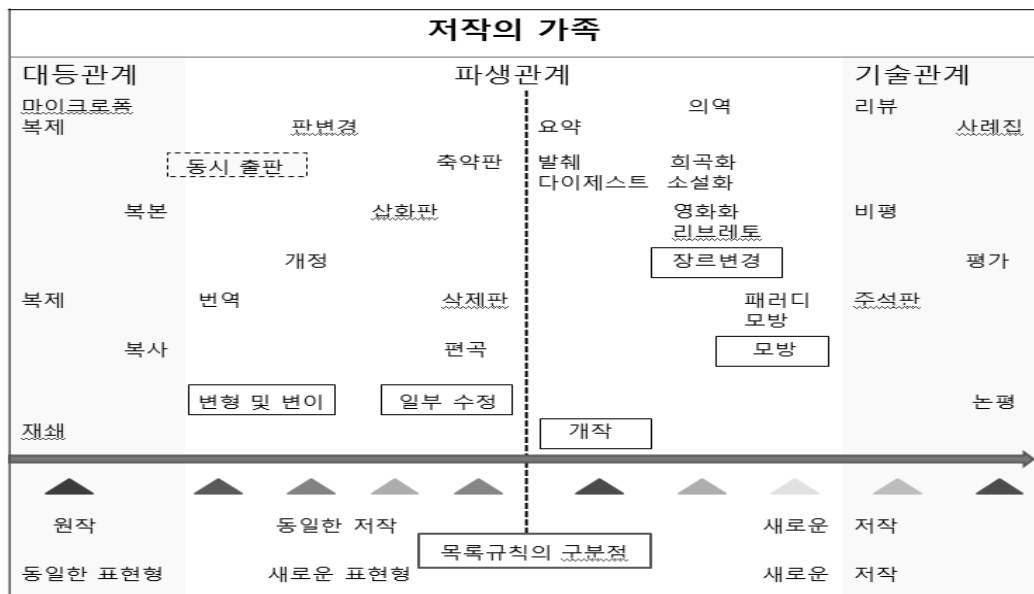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서지적 관계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유형에 있어서는 대부분 일반 목록규칙의 기술요소나 FRBR, RDA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

는 유형들이다. 학자들에 따라 구분방법이 다를 뿐 실제 서지적 관계들은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내용도 분석해 보면 FRBR, RDA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적인 서지적 유형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RDA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등관계, 파생관계, 기술관계, 전체-부분관계, 딸림관계의 6가지 관계 유형을 바탕으로 사서오경의 특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저작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 2. 새로운 저작의 경계선

FRBR의 제1집단은 저작의 개념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서지레코드에 기술되어 있는 지적 예술적 활동의 성과’로서 정보원을 이용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4개의 개체 즉,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저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저작은 저작 상호간에 서지적 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저작이지만 저작 상호간에 후속, 부록, 보유, 요약, 개작, 변형, 각색, 모방, 해설, 비평, 평가 등의 서지적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Tillett(2001, 23)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동일한 저작과 새로운 저작, 동일한 표현형과 새로운 표현형의 경계지점을 구분하면서 이러한 저작을 모두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여 한 저작의 가족(family of works)으로 인식하였다. 즉, Tillett(2004)은 Yee(1998, 41)가 언급했던 슈퍼저작(super work)의 개념을 저작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FRBR 모형을 통해 구조화하여 나타냈다.



<그림 1> 서지적 관계 유형과 저작의 가족

RDA에도 서지적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부록 J에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를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관계 표시어는 이러한 저작의 가족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목록레코드는 저작이나 표현형, 구현형 단위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개념으로 저작을 구분하지도 않았다. 모든 저작을 구현형 수준에서 각각 레코드를 생성하였으므로 구현형마다 모두 새로운 저작으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FRBR 개념이 적용되고부터 이러한 저작의 경계지점이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새로운 저작의 경계선을 어느 지점에 두느냐에 따라 구조화의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새로운 저작도 관련이 있는 ‘저작의 가족’이라면 모두 하나의 저작 집단으로 구조화하여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Ⅲ.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유형과 FRBR 적용 방안

#### 1.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유형

##### 가. 서지적 관계 유형의 조사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조사의 범위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로 한정하였으며, OPAC을 통해 서지레코드를 조사하여 관련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2014년 12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오경 관련 저작은 분류기호와 키워드 검색결과 고문헌은 대략 990여권, 현대문헌은 1,950여권으로 모두 2,940여권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저작을 RDA를 비롯하여 김정현(2007)과 송선경(2010) 등의 연구를 종합하여 구분한 <표 1>의 관계유형을 토대로 서지적 관계 유형을 조사하였다.

II장에서 살펴본 관계 유형들은 대부분의 서지적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며, 실제로 이들 내용은 대개 KORMARC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내 도서관의 서지레코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sup>1)</sup>에서 연관저록 필드를 중심으로 서지레코드에 기술된 내용과 실물자료를 대조하여 조사한 바, <표 1>의 서지요소들이 실제로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관저록 필드가 아닌 일반 주기사항에 기술된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특히 기술관계에 해당하는 해설이나 평론, 파생관계에 해당하는 번역, 요약, 개작 등은 원작과의 관계가 거의 기재되지 않고 극히 일부 도서만이 일반 주기사항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1) 2015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100여권의 도서를 무작위 추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를 통해 실물자료와 서지레코드를 조사하여 서지적 관계 유형들의 기재사항을 분석하였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2호)

〈표 1〉 서지적 관계 유형과 KORMARC 형식의 대응

	서지적 관계 유형	KORMARC 형식의 대응 필드
대등 관계	복제, 인본, 사본, 영인본	776(기타형태저록), 533(복제주기), 534(원본주기)
	원문 DB	775(이관저록), 530(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주기)
파생 관계	번역, 언해	008/35-37(언어구분), 041(언어부호), 246(제2지시기호 2: 원표제), 546(언어주기), 765(원저저록), 767(번역저록)
	음훈, 구결, 이두	
	개정, 중정(重訂)	
	증보, 축약	250(판사항), 500(일반주기)
	요약, 발췌	
	개작, 소설, 만화	787(비특정적 관계저록), 500(일반주기)
기술 관계	해설, 주석, 약해, 주해, 집주	
	역주(譯註), 역해(譯解)	008/33u(문학형식: 평론), 786(데이터의 정보원기록), 500(일반주기)
	비평, 평론, 서평	
	평역(評譯)	
전체 부분 관계	전집, 선집, 합집, 다권본으로 된 각권, 총서중의 단행본	760(상위총서저록), 762(하위총서저록), 773(기본자료저록), 774(구성단위저록), 440(총서사항/부출표목표제), 490(총서표제/부출되지 않거나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표제), 505(내용주기), 245\$n(권차사항)
	전집, 선집, 합집, 다권본 중 부분 소장	
딸림 관계	부록, 보유, 특별호, 지침서, 색인집, 용어집, 연호표, 연혁표	770(보유판 및 특별호 저록), 772(모체레코드저록), 777(동시발간자료), 525(부록주기)
전후 관계	선행자료, 전편	247(변경전표제나 표제변동), 780(선행저록), 500(일반주기), 547(변경전 표제 설명주기)
	후속자료, 후편, 속편	247(변경전표제나 표제변동), 785(후속저록), 500(일반주기), 547(변경전 표제 설명주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등관계에 해당하는 복제와 원문 DB, 파생관계에 해당하는 번역, 전체-부분관계에 해당하는 선집이나 합집, 딸림관계에 해당하는 부록, 전후관계에 해당하는 선행 및 후속자료 등은 KORMARC 형식에 기술할 수 있는 고유의 필드 번호가 있다. 이와는 달리 기술관계에 해당하는 해설이나 평론 등의 서지적 관계는 고유의 필드번호 없이 대부분 서지내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간주하여 일반주기 필드에 기술하고 있다.

서지적 관계 유형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내려오는 사서오경의 원전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오경 관련 저작들과의 서지적 관계 유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대등관계: 동일한 원작에 대한 원문 DB, 복제 등의 빈도수를 조사함. 원문 DB로 구축된 자료의 경우 이미지파일이 대부분임.
- 파생관계: 동일한 원작에 대한 번역, 개정, 개작, 증보, 축약 등의 빈도수를 조사함. Smiraglia는 ‘증보’를 원작에 대한 삽화, 비평, 용어, 색인, 주석 등이 부가된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으나, 비평이나 주석이 부가된 것은 파생관계의 증보가 아니라 기술관계의 해설로 간주함. 음훈이나 구결, 이두는 번역이나 언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이와 구분하여 조사함.



- 기술관계: 동일한 원작에 대한 평론나 해설 등의 빈도수를 조사함.
- 전체-부분관계: 동일한 저작에 대한 선집이나 합집 등의 빈도수를 조사함. 전체(예를 들면, 총서명이나 합집서명이 여기에 해당됨)를 원작 1회로 간주하고 해당 부분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 딸림관계: 모체자료에 대한 딸림자료인 별책부록이나 보유 등의 빈도수를 계산함.
- 전후관계: 선행자료와 후속자료를 모두 조사하면 중복되므로 선행자료에 대한 후속자료 즉, 후속지나 후편, 속편 등의 빈도수를 계산함. 경전의 경우 전후관계에 해당하는 후편이나 속편도 실제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후편이나 속편이 있다할 지라도 대부분이 원전의 해설에 대한 후편이나 속편에 해당됨.

#### 나. 서지적 관계 유형의 현황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유형과 관련하여 <표 1>을 근거로 KORMARC 레코드를 조사하였지만 기술관계에 해당하는 해설이나 평론 등의 유형과 파생관계에 해당하는 개작이나 각색 등의 유형은 500 필드(일반주기)를 제외하고는 이들 내용이 직접 기술되는 해당 필드가 없다. 물론 787 필드(비특정적 관계저록)나 786 필드(데이터의 정보원기록)에 기술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기술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반주기에 일부 기술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특정 저작유형의 해당 필드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특정 저작유형에 대한 필드가 없으면 일반주기에 기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김정현 2007, 194).

서지적 관계 유형의 구체적인 현황은 <표 2>~<표 5>와 같다. <표 2>는 레코드당 관계 유형의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이며, 조사대상 레코드 2,940개 모두 서지적 관계 유형이 최소한 1회 이상 출현하고 있다. 이는 사서오경 원전에 대한 해설이나 번역 등 어떠한 형태의 서지적 관계 유형이 1개 이상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서지적 관계 유형이 2회 출현하는 경우는 1,417개로 48.2%, 3회 출현하는 경우는 310개로 10.5%, 4회 이상은 23건으로 0.8%에 불과했다. 물론 '개정' 등과 같은 유형을 포함하면, 4회 이상도 일부 존재하지만 여기서 개정은 원전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해설이나 비평, 역주, 평역 등의 개정이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해설이나 비평, 역주, 평역 등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2회 출현하는 경우 '번역+원문 DB', '해설+원문 DB', '비평+원문 DB', '번역+합집', '해설+합집'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회 출현하는 경우 '번역+해설+원문 DB', '번역+해설+합집', '번역+비평+원문 DB'가 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회 출현의 경우 소수이지만 '번역+해설+원문 DB+합집'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딸림관계와 전후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표 3>과 <표 4>에서 항목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 2〉 서지적 관계 유형의 출현빈도 현황

서지적 관계 유형의 출현빈도	장서수(권)			백분율(%)
	현대문헌	고문헌	합계	
0회	0	0	0	0
1회	1,950	990	2,940	100.0
2회	737	680	1,417	48.2
3회	205	105	310	10.5
4회 이상	15	8	23	0.8

〈표 3〉과 〈표 4〉는 사서오경의 현대문헌과 고문헌에 대한 서지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3〉과 〈표 4〉에서 과생관계와 기술관계를 합산하면 1,950권(100%)이며, 대등관계는 825(42.3%), 부분-전체관계는 289(14.8%)이다. 이는 과생관계와 기술관계는 중복출현이 없는 반면, 대등관계와 부분-전체관계는 대부분 중복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3〉과 〈표 4〉에서 기술관계는 현대문헌과 고문헌이 각각 73.0%와 73.8%, 과생관계는 27.0%와 26.2%로 서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대등관계는 현대문헌의 42.3%에 비해 고문헌이 70.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문헌의 보존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원문 DB 구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지적 관계를 유형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현대문헌의 경우 원전에 대한 해설이나 주석이 38.4%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주나 역해 19.7%, 번역이나 언해 18.9%, 평론이나 비평이 13.64%이다. 고문헌의 경우 원전에 대한 해설이나 주석이 72.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서 번역이나 언해 13.5%, 음훈이나 구결이 10.4%이다.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고문헌에 비해 현대문헌의 경우 원전에 대한 소설이나 만화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과생관계의 저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FRBR과 관련하여 서지적 관계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FRBR은 개체간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유용성을 가지려면 개체간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원작에 대해 각종 서지적 관계에 따른 다양한 저작유형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FRBR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FRBR의 저작개념 가운데 표현형이 적어도 2개 이상 존재하는 저작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표현형이 2개 이상 존재한다는 것은 그 하위개념인 구현형도 당연히 2개 이상 존재하므로 복잡한 서지적 관계가 존재하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원문 DB와 복제의 대등관계는 구현형 수준에서 식별되며, 표현형의 수준에서 식별되는 것이 번역이나 언해, 음훈, 구결 등의 저작이다. 또한 저작의 가족으로 기술관계에 해당하는 해설이나 주석, 역주나 역해, 평역, 요약, 발췌, 소설, 만화 등은 저작 수준에서 식별된다. 〈표 3〉과 〈표 4〉에서 이에 해당되는 저작유형은 전체 저작 모두가 1건 이상 해당되며, 결국 FRBR을 적용하였을 경우 이들 자료가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문헌의 경우 판사항에 해당하는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목판본, 필사본, 연활자본, 영인본, 복사본 등의 판종은 서지적 관계로 보면 대등관계로 볼 수 있으며, 구현형 수준에서 식별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 목판본이 31.3%, 중국목판본 17.5%과 일본목판본 16.3%로 목판본이 모두 6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어서 금속활자본, 필사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들은 고문헌의 이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표 5>의 서지유형들과 함께 식별될 수 있도록 구조할 필요가 있다.

<표 3> 사서오경(현대문헌)의 서지적 관계 유형 현황

서지 유형		저작	논어 (347)	맹자 (270)	중용 (164)	대학 (222)	시경 (119)	서경 (105)	주역 (428)	예기 (130)	춘추 (165)	합계 1,950(%)
대등 관계	원문 DB	142	152	94	68	67	45	91	21	27	707(36.3)	825 (42.3)
	복제	20	15	5	7	18	22	6	13	12	118(6.1)	
파생 관계	번역, 언해	88	65	40	47	26	27	42	16	18	369(18.9)	526 (27.0)
	음훈, 구결	1	2	1	2	1	1	3	0	0	11(0.6)	
	요약, 발췌	5	4	2	5	3	0	4	5	2	30(1.5)	
	소설	13	5	2	2	2	2	18	8	4	56(2.9)	
	만화	18	14	9	7	0	1	6	1	4	60(3.1)	
기술 관계	해설, 주석	102	105	56	64	43	47	185	61	86	749(38.4)	1,425 (73.0)
	역해, 역주	65	34	30	72	22	19	76	32	35	385(19.7)	
	평론, 비평	47	35	22	21	22	8	88	7	16	266(13.6)	
	평역	8	6	2	2	0	0	6	0	0	24(1.2)	
전체 부분 관계	전집, 합집	59	48	68	22	14	8	45	10	15	289(14.8)	289 (14.8)

<표 4> 사서오경(고문헌)의 서지적 관계 현황

서지 유형		저작	논어 (145)	맹자 (90)	중용 (97)	대학 (130)	시경 (81)	서경 (71)	주역 (165)	예기 (59)	춘추 (152)	합계 990(%)
대등 관계	원문 DB	76	56	60	82	57	49	110	42	120	652(65.9)	702 (70.9)
	복제	11	2	3	6	5	0	14	4	5	50(5.1)	
파생 관계	번역, 언해	28	17	23	21	12	11	20	0	2	134(13.5)	259 (26.2)
	음훈, 구결	15	4	6	12	10	8	24	7	17	103(10.4)	
	요약, 발췌	0	4	5	4	5	1	0	3	0	22(2.2)	
기술 관계	해설, 주석	96	57	61	89	54	51	121	49	135	713(72.0)	731 (73.8)
	역해, 역주	0	0	2	0	0	0	0	0	0	2(0.0)	
	평론	5	7	0	4	0	0	0	0	0	16(1.6)	
전체 부분 관계	전집, 합집	57	35	12	33	12	15	42	16	26	248(25.0)	248 (25.0)

〈표 5〉 사서오경(고문헌)의 판종 현황

판종 \ 저작	논어 (145)	맹자 (90)	중용 (97)	대학 (130)	시경 (81)	서경 (71)	주역 (165)	예기 (59)	춘추 (152)	합계 990권(100%)
金屬活字本	8	7	10	17	9	4	15	7	18	95(9.6)
木活字本	10	9	5	6	5	3	3	1	6	48(4.8)
木板本	47	34	41	44	23	35	43	19	24	310(31.3)
木板本(中國)	15	12	8	11	12	15	30	17	53	173(17.5)
木板本(日本)	26	11	13	28	17	8	27	5	26	161(16.3)
筆寫本	9	8	13	8	9	4	15	4	9	79(8.0)
鉛活字本	19	7	3	7	1	2	13	1	9	62(6.3)
石板本			1	3			5	1	2	12(1.2)
影印本	11	2	2	3	3	0	6	4	2	33(3.3)
複寫本			1	3	2		8		3	17(1.7)

## 2. 서지적 관계 유형의 KORMARC 기술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유형은 <표 3>~<표 5>와 같으며, 이들 각 유형의 저작이 KORMARC 레코드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유형별로 분석하기로 한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서지적 관계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다.

첫째, 해당 저작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예시 1]의 776 필드와 같이 연관저록 필드에 관련 저작을 기술하는 방법이며, 여기에는 <표 1>에 제시된 대부분의 서지적 관계 유형이 해당된다.

[예시 1] 원문 DB

245 00 ▽ a中庸章句大全/ ▽ d胡廣 等編  
 250 ▽ a木板本  
 580 ▽ a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축됨  
 653 ▽ a경서 ▽ a사서 ▽ a중용 ▽ a중용장구대전  
 776 1 ▽ c컴퓨터파일. ▽ t2004년 주요자료원문정보 DB

둘째, 해당 저작과의 서지적 관계를 기술하고 있지만 [예시 2]~[예시 4]의 500 필드와 같이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기사항에 기술하는 방법이며, 여기에는 파생관계에 해당되는 요약, 발췌, 소설, 만화 등과 기술관계에 해당되는 비평, 해제 등의 저작이 있다.

[예시 2] 해설(주해)

245 00 ▽ a書傳正文/ ▽ d蔡沈(宋) 編  
 250 ▽ a金屬活字本(後期芸閣印書體字)  
 500 ▽ a이 책은 유가의 5경(五經) 가운데 하나인 『서경(書經)』을 송(宋)나라 학자인 채침(蔡沈)이 주해한 주해서이다  
 653 ▽ a경서 ▽ a서경 ▽ a서전정문  
 730 0 ▽ a경서. ▽ p서경

[예시 2]는 유가의 5경(五經) 가운데 하나인 ‘書經’을 송나라 학자인 채침(蔡沈)이 주해한 주해서이다. 위의 예시와 같이 653과 730 필드의 기술사항으로 이 저작이 서경에 관한 저작임은 식별되지만 서경에 관한 해설서라는 사실은 식별되지 않는다. FRBR 알고리즘과 같이 기계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500 필드의 기술과 함께 구조화된 필드의 기술이 필요하다.

[예시 3] 개작(소설)

245 00 ▽ a공자와 섭공: ▽ b소설 논어/ ▽ d윤희성 편저  
 260 ▽ a서울: ▽ b태학당출판사, ▽ c1991  
 500 ▽ a이 책은 원작 ‘논어’를 소설로 개작한 것임  
 653 ▽ a공자 ▽ a섭공

[예시 3]은 원작 ‘論語’를 소설 형식으로 각색한 것이지만 목록 레코드의 기술사항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즉, 008 필드/33(문학형식)에 f(소설)가 입력되어 있으면 이 저작이 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소설의 원작이 ‘論語’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500 필드와 같이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실제 레코드에서는 기술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시 4] 만화

245 20 ▽ a(만화)논어/ ▽ d김정빈 글; ▽ e김덕호 그림  
 260 ▽ a서울: ▽ b두산동아, ▽ c2005  
 500 ▽ a이 만화는 원작 ‘논어’를 아동용으로 각색한 것임  
 650 8 ▽ a논어(사서) [論語]  
 653 ▽ a만화 ▽ a논어 ▽ a동양 고전

[예시 4]는 원작 ‘論語’를 만화로 제작한 것이지만 목록 레코드의 기술사항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즉, 008 필드/33(문학형식)에 c(만화)가 입력되어 있으면 이 저작이 만화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만화의 원작이 ‘論語’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500 필드에 이러한 사실을 기술해야 한다.

결국 KORMARC 체계에서 서지적 관계 유형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연관저록 필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관계에 해당하는 유형은 거의 구조화 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KORMARC 레코드에서 이러한 유형들은 대부분 500 필드에 기술되고 있으며, 이는 FRBR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김정현 2007, 14-16; 2015, 18-19). FRBR 적용을 위해서는 연관저록 필드나 관련 레코드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 3. FRBR 적용 방안

사서오경 등과 같은 경전의 해설이나 비평 등이 FRBR의 저작개념에서는 별개의 독립저작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과

저 작 논어(論語)	
표현형 11: 李乙浩에 의한 번역	
구현형 11-1: 論語 / 孔子 著; 李乙浩 譯(서울: 新楊社, 1959) [원문 DB]	
표현형 12: 張基權에 의한 번역	
구현형 12-1: (한글판) 論語 / 張基權 譯著(서울: 明文堂, 1984) [원문 DB]	
...	
표현형 21: 陳澧에 의한 해설	
구현형 21-1: 論語話解 / 陳澧 述(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3)	
표현형 22: 李民樹에 의한 해설	
구현형 22-1: 論語解說 / 李民樹 著(서울: 一潮閣, 1992) [원문 DB]	
...	
표현형 31: 金東吉과 許鎬九에 의한 역주	
구현형 31-1: 朱注論語 / 金東吉, 許鎬九 共譯注(서울: 創知社, 1992) [원문 DB]	
...	
표현형 41: 안병욱에 의한 비평	
구현형 41-1: 논어 인생론 / 안병욱 지음(서울: 자유문화사, 1996) [원문 DB]	
...	
표현형 51: 이인호에 의한 평역	
구현형 51-1: 이야기 논어 / 이인호 평역(서울: 큰방, 2000)	
...	
표현형 61: 김영수에 의한 소설	
구현형 61-1: 한글 세대를 위한 소설 논어 / 김영수 저(서울: 새빛문화사, 1991)	
...	
표현형 71: 장세현과 김신에 의한 만화	
구현형 71-1: 만화로 읽는 논어 이야기 / 장세현 글; 김신 만화(서울: 삼성출판사, 2001)	
...	

<그림 3> 『論語』(현대문헌)에 대한 FRBR의 적용 사례

<표 4>에서와 같이 사서오경은 특히 기술관계에 해당하는 해설, 주석, 역해, 역주, 평론, 비평, 평역 등의 서지적 관계 유형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 앞서 Tillett이 제시한 <그림 1>에서와 같이 FRBR을 적용하여 사서오경의 경전가운데 하나인 ‘論語’의 번역, 해설이나 비평, 역주, 평역, 소설, 만화 등을 모두 저작의 한 가족으로 묶어 구조화하면 <그림 3>,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물론 <그림 3>, <그림 4>에 제시한 것은 관련 저작을 저작의 한 가족으로 군집하여 나타내었지만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저작을 유형별로 추출하여 나타낼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p><b>저 작 대학(大學)</b>                  표현형 11: 宣祖命撰 대학에 대한 번역                  구현형 11-1: 大學診解 [木活字本] / 高宗17(1880)                  구현형 11-2: 大學診解 [金屬活字本] / 漢城府서울, 純祖20(1820) [원문 DB]                  구현형 11-3: 大學診解 [筆寫本] / 鄭阿永 書, 懷仁, 1911                  구현형 11-4: 大學診解 [木板本] / 肅宗21(1695) [원문 DB]                  ...                  표현형 12: 李珣에 의한 번역                  구현형 12-1: 大學栗谷先生診解 [金屬活字本] / 仁祖25(1749) [원문 DB]                  ...                  표현형 21: 朱熹에 의한 해설                  구현형 21-1: 大學或問 [木板本] / 世宗11(1429) [원문 DB]                  구현형 21-2: 大學或問 [日本木板本] / 了介態澤 編著, 天明8(1788)                  ...                  표현형 22: 朱熹에 의한 해설                  구현형 22-1: 大學章句或問 [木板本] / 淸州, 宣祖41(1608) [원문 DB]                  구현형 22-2: 大學章句或問 [木板本] / 淸州, 宣祖41(1608) [마이크로필름 릴 1개 ; 35 mm]                  ...                  표현형 23: 朱熹에 의한 해설                  구현형 23-1: 大學章句大全 [金屬活字本] / 胡廣 等編, 純祖28(1828) 刻[後刷]                  구현형 23-2: 大學章句大全 [木板本] / 胡廣 等編, 京城, 新舊書林, 1913 [원문 DB]                  ...                  표현형 24: 李滉에 의한 해설(합집)                  구현형 24-1: 四書釋義 [木板本] / 光海1(1609) [원문 DB]                  구현형 24-2: 四書釋義 [筆寫本] / 盧德奎, 憲宗8(1842)                  ...                  표현형 31: 李彥迪에 의한 비평                  구현형 31-1: 大學章句補遺 : 續大學或問 [木板本] / 李彥迪(朝鮮), [刊寫年未詳] [원문 DB]                  표현형 32: 眞德秀(宋)에 의한 비평                  구현형 32-1: 大學衍義 [中國木板本] / 眞德秀(宋) 彙輯, 陳仁錫(明) 評閱, 崇禎5(1632) 字                  ...</p>
-------------------------------------------------------------------------------------------------------------------------------------------------------------------------------------------------------------------------------------------------------------------------------------------------------------------------------------------------------------------------------------------------------------------------------------------------------------------------------------------------------------------------------------------------------------------------------------------------------------------------------------------------------------------------------------------------------------------------------------------------------------------------------------------------------------------------------------------------------------------------------------------------------------------------------------------------------------------------------------------------------------------------------------------------------------------------------------------------------------------------------------------------------------------------------------------------------------------------------------------------------------------------------------------------------------------------------------------------------------------------------------------------------------------------------------------------------------------------------------------------------------------------------------------------------------------------------------------------------------------

<그림 4> 『大學』(고문헌)에 대한 FRBR의 적용 사례

또한 이들 관련 저작을 실제로 구조화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작간의 관련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장치가 필요하다(김정현 외 2015, 6). 앞서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DA에서는 연결 장치로 관련 자원에 대한 식별자, 전거형 접근점,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된

형태의 관련 자원기술과 같이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RDA 24.4). KORMARC 레코드를 살펴보면 관련 자원에 대한 식별자와 통일표제와 같은 전거형 접근점이 일부 기술되어 있을 뿐이며, 대부분이 연관저록 필드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화된 기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구조화된 형태의 관련 자원기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숙과 이현주(2013, 416)는 국악자료의 특성과 RDA 부록 J를 참고하여 RDA 관계 표시어와 KORMARC 매핑과 함께 연관저록 필드의 ▼i를 ‘관계정보’로 재정의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연관저록 필드에 해당 관계 표시어가 없는 경우 787(비특정적 관계저록) 필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KORMARC의 해당 연관저록 필드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사서오경과 같은 경전의 경우, 실제 저작을 조사해 보면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서지 사항이 없이 참고정보원을 ‘논어’나 ‘중용’처럼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해서 나타낸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전은 특정 판을 지칭하여 참고정보원으로 기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통일표제 성격의 서명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필자는 연결 장치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경전의 경우, 전통적인 RDA의 전거형 접근점 즉, 통일표제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서오경가운데 논어나 대학의 전거형 접근점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에 주제명으로 이미 수록되어 있는 ‘논어(사서) [論語]’와 ‘대학(사서) [大學]’로 나타낼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 레코드에 이러한 용어를 통일표제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저작을 집중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나타내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FRBR을 적용하여 서지적 관계 유형별로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그림 5>의 예시와 같이 서지적 관계 유형을 나타내는 용어를 일반세목으로 조합하여 630 필드(주제명부출표목-통일표제)에 함께 기술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림 3>과 같이 관계 유형별로 쉽게 구조화할 수 있으며, 이는 FRBR의 제3집단인 주제와 연결하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문학류에 대한 FRBR 알고리즘의 개발과정에서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서지적 관계 유형들은 알고리즘 설계가 용이하지만, 연관저록 필드가 없어 500 필드에 주로 기술되고 있는 저작들의 군집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김정현 외 2015, 6-18). 주제명표목표를 일부 보완한 후 630 필드에서 통일표제(▼a)와 일반세목(▼x)을 활용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630 08 ▼a논어(사서) [論語] ▼x해설[解說]	630 08 ▼a대학(사서) [大學] ▼x해설[解說]
630 08 ▼a논어(사서) [論語] ▼x역주[譯註]	630 08 ▼a대학(사서) [大學] ▼x역주[譯註]
630 08 ▼a논어(사서) [論語] ▼x비평[批評]	630 08 ▼a대학(사서) [大學] ▼x비평[批評]
630 08 ▼a논어(사서) [論語] ▼x평역[評譯]	630 08 ▼a대학(사서) [大學] ▼x평역[評譯]
630 08 ▼a논어(사서) [論語] ▼x소설[小說]	630 08 ▼a대학(사서) [大學] ▼x소설[小說]
630 08 ▼a논어(사서) [論語] ▼x만화[漫畫]	630 08 ▼a대학(사서) [大學] ▼x만화[漫畫]
630 08 ▼a논어(사서) [論語] ▼x번역[翻譯]	630 08 ▼a대학(사서) [大學] ▼x번역[翻譯]
630 08 ▼a논어(사서) [論語] ▼x구결[口訣]	630 08 ▼a대학(사서) [大學] ▼x구결[口訣]
...	...

<그림 5> 『論語』와 『大學』에 대한 630 필드의 예시

한편 책임표시의 역할어를 활용하여 해설이나 비평, 번역, 만화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RDA 부록 I에서도 자원과 그 자원에 연관된 개인, 가족, 단체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130여개의 관계 표시어 즉, 역할어를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KORMARC 레코드를 조사해 보면 역할어가 책임표시의 실제적인 역할대로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전에 대한 비평이나 해설임에도 불구하고 책임표시의 역할어에는 단순히 ‘저(著)’나 ‘술(述)’, ‘지음’으로 표시되어 책임표시의 역할어를 활용하여 서지적 관계 유형을 구분하여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책임표시의 역할어는 제한적으로 활용하거나 목록자가 서지레코드 작성시에 역할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 다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IV. 결론

지금까지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특성에 따른 FRBR의 적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지적 관계 유형은 RDA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대등관계, 파생관계, 기술관계, 전체-부분관계, 딸림관계, 전후관계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사서오경에 관한 현대 문헌의 경우 기술관계 73.0%, 파생관계 27.0%, 대등관계 42.3%로 나타났고, 딸림관계와 전후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서지적 관계를 유형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해설 38.4%, 역주 19.7%, 번역 18.9%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지적 관계 유형은 모든 자료에서 최소한 1회 이상 출현하고 있으며, 2회 48.3%, 3회 10.5%, 4회 이상은 0.8%에 불과했다. 여기서 2회 출현하는 경우 ‘번역+원문 DB’, ‘해설+원문 DB’, 3회 출현하는 경우 ‘번역+해설+원문 DB’, ‘번역+해설+합집’이 주로 많이 나타났다. 고문헌의 경우 판종별로 분석한 결과 목판본이 65.1%, 금속활자본 9.6%, 필사본 8.0%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지적 관계 유형은 KORMARC에서 주로 연관저록에 기술되고 있지만 사서오경의 개작이나 소설, 만화 등 파생관계 저작들은 관계 내용을 500 필드에 기술하고 있어 이들 저작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술관계에 해당하는 해설이나 평론, 역주, 평역 등은 해당 연관저록 필드가 없거나 이러한 내용 자체가 기재되지 않고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사서오경의 FRBR 적용 방안으로 개작, 해설, 평론, 역주, 평역 등도 저작의 가족으로 정의한 슈퍼저작 개념의 도입, 관련 저작의 연결 장치로서 RDA의 전거형 접근점 즉, 통일표제의 활용, 그리고 630 필드에 주제명표목으로 통일표제 기술의 예시를 제안하였다.

## 참고문헌

- 김정현. 2007. 서지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도서의 저작유형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183-200.
- 김정현, 이성숙, 이유정. 2015. KORMARC 서지레코드의 FRBR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1): 1-23.
- 김태수. 1994. 목록에서의 서지적 관계와 연결구조에 관한 연구. 『文獻情報學論叢: 李載喆教授定年紀念論文集』, 1994: 159-182.
- 노지현. 2008. KORMARC 레코드에 대한 FRBR 모델의 적용 실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레코드를 사례로 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291-312.
- 董桂存, 김정현. 2013. FRBR 모형에 의한 중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유형 분석: 중국국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269-286.
- 송선경. 2010. 『고서의 FRBR 모형 기반 서지레코드 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성숙. 2004. 『FRBR 모형의 수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성숙, 이현주. 2013. 한국전통음악의 서지적 관계 특성에 따른 FRBR 모형 적용방안. 『사회과학연구』, 24(2): 399-421.
- 이양숙. 1999. 『서지적 관계 유형에 기반한 참조시스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조재인. 2005. 표현형 계층을 중심으로 한 FRBR 모형분석 및 목록 체계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221-239.
- 橋結秋子. 2005. 日本語書誌レコードにおけるFRBRモデルの有用性: 著作パターンの分析. 『日本圖書館情報學會 三田圖書館情報學會 合同研究大會發表要綱』, 2005: 153-156.

- Bennett, Rick, Brian F. Lavoie, Edward T. O'Neill. 2003. "The Concept of a Work in WorldCat : an Application of FRBR." *Library Collection,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27(1): 45-59.
- Bertha, Eva. 1993. "Inter- and Intrabibliographical Relationships: a Concept for a Hypercatalog." In: *Opportunity 2000: Understanding and Serving Users in an Electronic Library*(Germany, Essen: Essen Univ. Library): 212-223.
-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1998.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München: Saur.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0. *RDA :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Smiraglia, R.P. and G.H. Leazer. 1999. "Derivativ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the Work Relationship in a Global Bibliographic Databas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6): 493-504.
- Tillett, Barbara B. 1992. "Bibliographic Relationships: an Empirical Study of the LC Machine-Readable Record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36(2): 162-188.
- Tillett, Barbara B. 2001. "Bibliographic Relationships." In: *Relationships in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Netherlands, Dordrecht: Kluwer Academic): 19-35.
- Tillett, Barbara B. 2003. "The FRBR Model(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ALCTS Institute on Metadata and AACR2*, April 4-5, 2003, San Jose, CA. <<http://www.loc.gov/catdir/cpso/frbeng.pdf>>. [cited 2015. 4. 3].
- Vellucci, Sherry L. 1998. "Bibliographic Relationships." In: *The Principles and Future of AACR: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inciples and Future Development of AACR, Toronto, Ontario, Canada, October 23-25, 1997*(Chicago : ALA): 105-147.
- Yee, Martha M. 1998. "Editions: Brainstorming for AACR2000." In: *The Future of the Descriptive Cataloging Rules*(Ed., Brian E.C. Schottlaender(Chicago: ALA): 40-65.
- Zhang, Ying. 2003. *Bibliographic Relationships among Chinese Publications: a Bibliographic Study of the Chinese Collections of the East Asia Resources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M. A. Thesi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Jane. 2005. "The Study on the FRBR Adoption into Cataloging Rule Focused on its Expression Leve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2): 221-239.
- Dong, Gui-Cun and Jeong-Hyen Kim. 2013. "A Study on the Work Types of Chinese Bibliographic Records Based FRBR Model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269-286.
- Kim, Jeong-Hyen. 2007. "An Analysis on the Work Types of Korean Books Based Bibliographical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183-200.
- Kim, Jeong-Hyen, Sung-Sook Lee, You-Jeong Lee.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RBR Algorithm for KORMARC Bibliographic Recor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1): 1-23.
- Lee, Sung-Sook. 2004. *A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FRBR Model*. Ph. D. diss., Yonsei University, Korea.
- Lee, Sung-Sook. and Hyun-Ju Lee. 2013. "A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FRBR Model According to th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of Korean Classical Music." *Journal of Social Science*, 24(2): 399-421.
- Lee, Yang-Sook. 1999. *A Study on the Cross-Reference System Based on Bibliographic Relations*. Ph. D. diss., Yonsei University, Korea.
- Rho, Jee-Hyun. 2008. "An Application of FRBR Model to KORMARC Recor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291-312.
- Song, Sun-Kyung. 2010. *A study of Bibliographic Record Based on FRBR Model of Old Books*. M. A.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